배기가스 · 하수 처리기술 개발 지원

환경부, 2010년까지 1300억원 투입 ... 유럽보다 강력한 기준 적용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과 하수와 폐수의 고도정화 처리를 위한 기술 개발에 2010년까지 1300억원이 투입된다.

환경부는 5월17일 시장성이 높은 전략적 환경기술 개발계획인 <Eco-STAR Project(Eco-Science Technology Advancement Research Project)>의 우선사업 부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발과 하·폐수의 고도정화 처리기술 개발을 위해 2010년까지 각각 65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9월까지 <무·저공해 자동차 사업단>을 구성한 뒤 경유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을 2005년 유럽적용 기준인 <유로4>에 비해 30% 가량 줄일 수 있는 기술을 2010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또 휘발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기술은 2004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적용하고 있는 초저공해 자동차(ULEV)보다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40% 이상 저감되는 극초저공해 자동차(SULEV)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하수와 폐수의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를 3ppm 이하로 낮추는 처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수처리 선진화 사업단>을 발족시키고 6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각 사업단장에게는 사업단 운영에 관한 전권을 부여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목표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화학저널 2004/05/18>